

제5장 고려 시대

1. 후삼국~고려 건국시기 보령의 추이

신라 하대 중앙 귀족들의 왕위쟁탈전이 전개되면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들은 지방의 농민 봉기를 배경으로 각처에서 일어나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유력 호족들인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의 혼란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는 그 지배권이 경주일대로 축소되어 다시 삼국이 정립하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견훤은 전라도 지역의 군사력과 호족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후백제는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여,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궁예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신라 왕족의 후예로 처음에는 북원(원주)지방의 도적 집단인 양길의 아래에 들어가 강원도·경기도 일대의 중부지방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 세력이 커지자 양길을 몰아낸 다음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다음 조령을 넘어 상주일대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영토가 넓어지고 국가 기반이 다져지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한편 송악출신의 호족이던 왕건은 처음 궁예의 아래에 들어가 전공을 세우고 시중의 지위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궁예가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정치를 도모하여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자, 신승겸 복지겸 홍유 등은 궁예를 몰아낸 뒤 왕건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신하들의 추대 형식을 통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 국호를 고려라 하고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918) 고려가 건국된 것이다.

이러한 후삼국~고려 건국시기에 보령의 동향을 알려 주는 자료는 없다. 당시 충남지역은 후백제와 후고구려 쟁패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여 양 세력 간의 관심이 대상이 된 장소였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상황 고찰을 통하여 보령지역의 상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후백제 견훤과 후고구려 궁예가 각축을 벌이던 10세기 초 보령의 이웃 운주(홍성)의 호족 궁준(兢俊)은 궁예 쪽에 기울고 있었다. 『고려사』 태조세가 원년 8월에 “운주(공주), 운주(홍성) 등 10여 주현이 배반하여 견훤의 후백제에 귀부하였다.”고 나온다. 이 기록에 의하면 왕건의 즉위 이전에는 운주나 홍주 등 10여 주현이 후고구려에 속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왕건 즉위 2개월 만에 홍주 등 10여 주현이 견훤의 후백제에 귀부한 것이다. 918년 궁예가 축출되고 내부 정변에 의하여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상황이 견훤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것이다. 궁예의 축출이라는 후고구려의 내부의 정변과 혼란이 이들 변경지역의 호족들을 동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보령지역이 후고구려나 후백제 중 어느 영역에 속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왕건과 견훤의 최전방 경계선 상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홍주·공주 등 충남 지역의 대부분이 왕건의 등극과 함께 견훤에게 돌아감으로써 위기를 느낀 고려는 시중을 지낸 김행도(金行濤)를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 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로 삼아 이에 대처하였다. 김행도가 지아주제군사로 파견된 것으로 보아 고려는 천안 아산 등 충남의 서북부 일부만을 세력권에 남기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려는 천안·아산 등을 교두보로 삼아 꾸준히 내포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아산에 시중 김행도를 파견한 왕건은 즉위 이듬해인 919년(태조 2) 8월 지금까지 오산성(烏山城)으로 불리던 예산을 예산현(禮山縣)으로 고치고, 대상(大相) 벼슬의 애선(哀宣)과 홍유(洪儒)를 보내 이 지역 유민(流民) 500여 호를 다시 모아 편히 살게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예산 지명의 시초인데, 이는 후백제로 전향하였던 예산을 고려 측이 다시 회복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산에 파견된 홍유는 신승겸 복지겸 등과 함께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건국한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아산에 시중을 지낸 김행도를 보내고, 2년 후 다시 개국공신 홍유 등으로 예산의 백성들을 수습하게 한 것은 왕건 태조가 내포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조 8년(925)에는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이 임존군(예산 대흥)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예산까지 진출했던 고려군이 6년 만에 임존군까지 남하한 것이다. 임존군은 7세기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 거점인 천연의 요새 임존성이 위치한 곳이다. 고려군이 후백제 견훤의 군사 3천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는 것은 당시 이 전투가 얼마나 크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 남하하던 고려군이 홍주에 대하여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것은 임존군 전투 2년 후인 태조 10년(927) 3월의 일이었다. 이때는 왕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였다. 이때 고려사의 기록에는 “신유일(辛酉日)에 왕이 운주로 쳐들어가 성주 궁준을 성 밑에서

패배시켰다.”라는 간단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서 전투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홍주를 점령한 왕건의 고려군은 당시 공주에 주둔하고 있던 견훤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 동남부 지역은 후백제의 대 고려 거점이 되고, 반대로 서북지역의 홍주는 고려의 대 후백제 전방 요충이 된 형세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 당시 보령은 내포지역에서 홍주와 공주를 축으로 형성된 전선에서 최전방의 위치였을 뿐 아니라, 미약하게나마 후백제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왕건의 고려군이 홍주를 점령하고 서해안으로 남하하지 않고, 내륙의 공주를 공격한 것은 홍주 이남지역은 견훤과 왕건의 쟁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성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최전방 지대였음에도 전쟁의 화를 입지 않고 편안함을 보존했음인지 훗날 고려 초기에 신촌현(新村縣이 보령현(保寧縣)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는가 추정해 볼 수도 있겠다.

왕건은 내포지역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후백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조 11년(928) 대목군(천안)에 행차하여 목천 아산 등지의 땅을 일부 재편하여 천안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태조 17년(934) 9월 홍주에서 왕건과 견훤은 직접 대결을 벌이게 된다. 태조 17년(934) 9월 견훤은 정예군 5천으로 고려군 수중에 든 홍주를 공격하였다. 이에 왕건 역시 직접 출정하여, 934년의 홍주전투는 고려와 후백제 양국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가름하는 충남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일대회전의 결전장이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왕건의 쉬운 승리로 끝났다. 『고려사』 태조세가의 기록에는 “9월 정사일(丁巳日)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였다. 여기에서 견훤과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고 나온다. 기록에 의하면 왕건의 일방적 승리였던 것이다. 934년의 왕건과 견훤의 홍주 전투는 내포지역과 충남 지역을 둘러싼 고려와 후백제의 각축전에서 고려의 승리를 확실히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그 결과 『고려사』에는 “웅주(공주) 북쪽의 30여 성이 위풍(威風)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본다면 보령지역도 사실상 이때 고려의 영향권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936년 고려는 후백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물론 후삼국 통일 이후에 보령지역은 완전히 고려의 영역에 들었겠지만, 후삼국 초기에는 후백제의 영향권에 있다가, 홍주를 중심으로 한 고려와 후백제의 쟁패 속에서 그 쟁패의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점차 고려의 영향권에 들다가 결국 후삼국 통일 후 완전히 고려의 영역에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큰 전투는 보령지역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제도의 개편과 보령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중앙의 왕권이 안정되어 가면서, 지방의 행정조직도 성종 초부터 정비하기 시작했다. 현종 때 이르러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고 도 아래에 주와 군·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그리고 국방상 요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즉 현종 9년(1012) 5도 4도호부 8목을 두고, 그 아래에 56지주군사(知州軍事), 28진장(鎭將), 20현령(縣令)을 두었다.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중앙집권 체제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하고 지방세력의 영향력이 상당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령지역에도 보령현과 남포현의 2개의 현이 설치되었다. 보령의 북부 지역에는 백제 시대에는 신촌현, 통일 신라 시대에는 신읍현이 설치되었는데, 고려시대 현종 9년(1012)의 지방제도 정비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 보령현(保寧縣)이 설치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양광도 홍주에 3군 11현이 딸려 있는데, 보령현도 홍주에 딸린 속현의 하나였다. 당시 홍주에 딸려 있던 군현은 다음과 같다.

속군현 이름	군현의 소속과 개편내용	현 재 지역
혜성군(淸城郡)	현종9년 홍주에 소속, 후에 감무 설치	당진 면천 지역
대흥군(大興郡)	현종9년 홍주에 소속, 명종 2년에 감무설치	예산 대흥지역
결성군(結城郡)	현종9년 홍주에 소속, 명종 2년에 감무설치	홍성 결성 지역
고구현(高丘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서산 고북지역
보령현(保寧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예종 원년 감무 설치	보령 북부 지역
흥양현(興陽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홍성 서쪽(보령 천북?)
청양현(靑陽縣)	현종9년 천안 소속, 뒤에 홍주 소속으로 변경	
신평현(新平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당진 신평지역
덕풍현(德豐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명종 5년 감무 설치	예산 덕산 지역
이산현(伊山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후에 감무 설치	예산 덕산 지역
당진현(唐津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예종 원년 감무 설치	당진 지역
여미현(余美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예종 원년 감무 설치	서산 해미 지역
여양현(驪陽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홍성 남쪽
정해현(貞海縣)	현종9년 홍주에 소속, 후에 감무 설치	

자료 : 홍주대관(2002)

위 표에서 보듯이 홍주가 그 속현으로 관할하였던 지역은 오늘날 홍성군과 당진군 및 예산, 서산, 보령, 청양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홍주가 이렇게 충청 서부 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은 후삼국 통일기 홍주의 호족 공준, 홍규와 관련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홍규는 딸을 왕건과 혼인시켜 왕건과 혼맥을 형성했던 호족이었다.

보령현도 이 홍주의 속현으로 설치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보령현은 본래 백제의 신촌현(사촌현(沙村縣)이라고도 함)으로 신라 경덕왕이 이름을 신읍(新邑)으로 고쳐 결성군(潔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 현종 9년에 홍주에 속하게 하였으며 예종 원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고 하였으며, 이어 고려사 세가(世家)편 예종 원년조에 “보령도 다른 고을처럼 사람들이 유망(流亡)하는 기세가 보여 감무를 두어 초무(招撫)하게 하여, 산업을 번성하게 하고자 한다.”하였다.

이에 의하면 현종 9년(1012) 홍주의 속현으로 보령현이 설치되었고, 예종 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홍주 지방관의 통제 아래 대표되는 몇 개의 세력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그러다가 예종 원년 즉 1106년 통치가 부실한 틈을 타서 백성들이 흩어져 유망하니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지방관인 감무가 내려와 다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보령현은 이전에는 신촌현 신읍현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보령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어 오늘날 보령의 시초가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려사 지리지의 보령현조에 의하면 보령현의 설치는 현종 9년(1012)이지만, 보령이라는 이름은 이보다 먼저인 고려 초에 고쳐진 이름이라 하였다. 이것은 이미 1012년 이전에 보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왕건이 내포지역으로 남하하면서 보령과 가장 가까운 홍주를 접수하는 과정에 치른 두 번의 전쟁 즉 태조 10년(927)의 운주성주 공준과의 홍주 전투, 태조 17년(934)의 견훤과의 홍주 전투에서 인근에 있으면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어서 왕건이 보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천안(天安)도 원래는 대목군인데 왕건이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라는 뜻의 천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인데, 보령(保寧)과 뜻이 상통되는 면이 있다.

고려시대 보령현의 위치는 현재의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구성재에 있었다. 현재 보령 읍성의 서남쪽 500m 지점으로, 진당산 서남쪽 가지인 배재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는 구릉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이 곳은 사방을 관망하기 좋은 개활지이며, 주변에는 진당산성·봉당성·아현산성 등이 위치하여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보령지역의 북부에 보령현이 설치된 반면 남부 지역에는 남포현(藍浦縣)이 설치되었다.

남포현도 양광도 가림현에 딸린 1군 4현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가림현에 딸려 있던 군현은 다음과 같다.

속군현 이름	군현의 소속과 개편 내용	현재 지역
서림군(西林郡)	현종9년 가림현에 소속, 후에 감무 설치	서천군 지역
비인현(庇仁縣)	현종9년 가림현에 소속, 후에 감무 설치	서천군 비인 지역
홍산현(鴻山縣)	현종9년 가림현에 소속, 명종5년 한산 감무 통치	부여군 홍산 지역
남포현(藍浦縣)	현종9년 가림현에 소속, 후에 감무 설치	보령시 남부 지역
한산현(韓山縣)	현종9년 가림현에 소속, 명종5년 감무설치	서천군 한산 지역

자료 : 고려사 지리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포현도 현종 9년(1012)에 가림현의 속현으로 설치되었다가 어느 시기인가에 감무가 파견되고 있다. 현재는 하나의 보령이지만 보령현이 홍주의 속현이었던 반면 남포현은 가림현의 속현이 되어 고려시대는 통치상으로 동질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행정구역이었다.

이때 남포현의 위치는 현재의 남포면 읍내리가 아닌, 여기서 남쪽 15리 지점인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이었다. 이곳은 웅천천 하구 지역으로 웅천천 하구를 통하여 서해로 나갈 수 있는 관문에 위치한 곳이다. 여기의 지명이 현재 수안이지만 원래는 치소의 안쪽을 뜻하는 소안(所安)이며, 고읍내라는 지명이 옛 남포의 치소였음을 보여주는 바,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고읍이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당시 관청에서 모시던 부근당 신앙과 관련하여 지어진 부근당이 있었던 ‘불근맹이’ 지명이 있는가 하면, 관자명(官字銘) 어골문 기와, 문초석 등의 유물이 있어 고려시대 남포현의 치소였음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앞에는 운봉산성, 뒤에는 수부리산성이 있어, 전후에서 치소를 옹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산성은 길이가 운봉산성이 1,500여 m, 수부리산성이 2,800여 m가 되는 거대한 산성이다. 이 산성들은 조선시대 읍지 등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운봉산성은 고려시대 어골문 와편이 많이 발견된다.

고려 시대 동안 보령지역은 보령현과 남포현의 두 현과 함께, 특수 행정구역이었던 부곡과 소가 있었는데, 부곡으로는 현하부곡(縣河部曲:현 大川) 보원부곡(寶院部曲:현 靑羅), 김신부곡(金神部曲:현 鰲川) 건자산부곡(巾子山部曲:현 靑所)등이 있고, 소(所)로는 박평소(撲坪所:현 嶺山), 횡천소(橫川所:현 嶺山)가 있었다. 그 중 소는 주민들이 광산물이나 특정의 공산품을 생산하여 국가 수요에 충당하던 행정구역이었다. 최근 미산에서의



수안출토 관자명 어골문 와편

고려말에서 조선시대에 걸치는 요지(窯址)의 발굴,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의 도기소(陶器所) 자기소(磁器所)가 남포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품·하품의 도기나 자기를 생산했다는 기사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미산은 도자기를 생산하여 민간 또는 국가나 관청의 수요에 충당하였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산지역에서는 발굴지 이외의 장소에서도 많은 자기편이 지표면에서 수습되고 있다.

3. 삼별초의 항쟁과 보령

13세기 초 오랫동안 유목생활을 하던 몽고족이 부족을 통일하여 국가를 만들고, 고려에 왔던 몽고사신 일행이 귀국하던 길에 국경지대에서 살해된 사건을 구실로 몽고군이 고려에 침입해왔다. 몽고군은 1231년(고종 18)부터 1259년(고종 46)까지 6차 11회에 걸쳐 고려에 침입하여 고려는 미증유의 전란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고려는 몽고군 침입 이듬해인 고종 19년(1232) 여름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고와 끝까지 항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몽고군의 침입은 장기화되어 모두 6차 11회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몽고의 침입에서 보령지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몽고군의 침입 노선이 주로 영남 혹은 호남을 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노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보령은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몽고군이 서해안을 따라 호남을 가려면 금강 하구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진로는 천안과 충남 내륙을 거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몽고군이 보령지역에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보령의 북쪽인 예산 대흥까지는 침입하여 피해가 있었음이 고려사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즉 몽고의 3차 침입기인 고종 23년(1236) 8월 아산 일대에 주둔하였다가 9월 초 온양을 공격하였고, 이어서 대흥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 3차 침입기에 고려는 팔만대장경 조판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종 11년(1270) 몽고와의 항쟁을 주도해 왔던 강화도의 고려 무인정권이 무너지고, 개경환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곧 몽고의 오랜 군사적 압력에 따른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몽고에의 굴복과 복속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나선 것이 당시

고려의 정예 병력이었던 삼별초였다.

삼별초는 원래 야별초(夜別抄)라는 군부대에서 기원한다. 이 야별초는 처음에는 무인 정권 권력자 최우(崔瑀)가 만든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이었다. 이어서 몽고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야별초는 좌별초(左別抄)와 우별초(右別抄)로 나뉘고, 여기에 몽고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의군(神義軍)이라는 별도부대를 편성하여, 이 세 부대를 합칭하여 삼별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원래 권력자 최우에 의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친위적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었고, 대몽항쟁기에는 중앙에 주둔하는 가장 정예의 조직적인 군사력이었다.

대몽항쟁에 앞장섰던 이 삼별초는 1270년(원종 11) 고려의 개경환도가 이루어지자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항전을 계획하고 강화도를 떠나 그 거점을 전라도 서남해안의 진도(珍島)로 옮겨갔다. 진도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길목이면서,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중심지에 있었다. 이들은 진도 북쪽에 용장성이라는 성을 쌓고 우세한 해군력을 조직화하여 여몽군과의 대결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면서 그 나름대로 지배권을 확보해 갔다.

그러나 이듬해 원종 12년(1271) 5월 여몽 연합군의 대공세에 밀려 진도가 함락되었고, 국왕으로 옹립했던 승화후 온과 삼별초 최고 지도자였던 배중손이 전사하였다. 그리하여 남은 삼별초 무리들은 제주도로 들어가 김통정의 지휘 아래 1273년의 패물 때까지 계속 항쟁하였다.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를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 이곳에 들어온 삼별초는 처음 1년 동안은 거점 구축과 방어시설을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고, 제주에 들어온 지 1년 후인 원종 13년(1272)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때 삼별초의 활동은 처음 1단계는 삼별초의 본거지였던 전라도 일대에 대한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고, 제2단계는 전라도에서 충청 경기의 서해연안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심지어 개경까지 그 공격 가능권에 넣은 시기, 그리고 3단계는 몽고군이 주둔해 있던 경상도 연해지역까지 그 활동을 확대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1272년의 삼별초 활동에서 제2단계 활동은 서해상의 항로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병력을 중부 연해안까지 올려 보내면서 개경 정부의 조운로를 위협하였다. 이들 삼별초군이 보령지역을 위협하였던 것도 이 같은 시기의 일이었다. 보령해안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조운로 상의 중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요충지였으므로 당연히 삼별초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서해 중부 연안을 위협하던 제주도의 삼별초군이 보령지역을 위협한 것은 원종 13년

(1272)년 9월의 일이다. 이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중도 안찰사(中道按察使)가 보고하기를, “삼별초(三別抄)가 고란도(孤瀾島)에 침입하여 전함(戰艦) 6척을 불사르고 선장(船匠)을 죽이고 조선관(造船官) 홍주 부사(洪州副使) 이행검(李行儉)과 결성(結城)·남포(藍浦)의 감무(監務)를 잡아갔다.” 라고 하였다.

위 기록에 의하면 북상 중이던 삼별초군은 고란도에 침입하여 병선을 불질렀는데, 이곳에서는 삼별초 공격을 위한 조선(造船) 작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주부사 이행검이 조선(造船)의 감독관으로 지휘하고 있었고, 휘하에 인근 지역의 수령인 결성 및 남포의 감무가 그 지휘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보면 당시 고란도(고만도)를 중심으로 한 결성 혹은 남포와 홍주 일대에서는 조직적인 조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은 국가의 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조선작업의 정보를 입수한 삼별초가 고란도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삼별초가 공격한 고란(고만)이라는 지명은 현재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남아 있고, 송학리에는 고란도(고만도)로 추정되는 솔섬(松島)이 있다. 여기가 고려시대의 고란(고만)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혹자는 고려시대 조선소가 있었던 고란도는 원산도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고만이라는 같은 지명이 있어 연결시키고, 고려사 보령현조에 “고란도(高鸞島)가 있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삼별초가 침입한 고만(고란)은 주교면 송학리의 고만, 즉 송도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곳은 고려시대 중국으로 통하는 교통요지였음을 다음 기록이 증명한다.

『고려사』 세가 문종 31년 8월조에 “나주도(羅州道)의 제고사(祭告使) 대부 소경(大府少卿) 이당감(李唐鑑)이 아뢰기를, “중조(中朝)의 사신들이 고만도(高巒島)의 역정(驛亭)으로 왕래함은 수로에서 다소 떨어져서 배 탕기가 불편하오니 청컨대 홍주 관할 하의 정해현(眞海縣) 땅에 정(亭) 하나를 창치(創置)하여서 영송(迎送)하는 장소로 삼으소서.”

이어서 고만은 고려 말 조선 초 왜구의 침입시 중요시되어 충청수영이 처음 설치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였으므로 삼별초의 공격 대상이 되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조선 작업은 필시 제주도의 삼별초 공격작전에 소요될 함선의 제작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보를 입수한 삼별초군은 이곳을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아울러 연안 일대에 상륙, 조선(造船)의 책임자인 홍주부사와 결성, 남포의

감무를 잡아왔던 것이다.

결국 삼별초는 서해 연안을 오르내리며 연해안의 중요 요충지를 공격하면서 개경정부의 조운로를 마비시키는 작전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보령 연안 일대에 출몰하며 그 활동력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4. 왜구 침입과 보령

14세기 공민왕 대에 이르면 고려가 원(몽고)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된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려는 북쪽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흉건적의 침입과 함께 남쪽으로 부터는 왜구의 침입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공민왕에 이은 우왕대에는 왜구의 침입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기록상으로 고려 말 우리나라 전체 왜구 침입 건수는 471건, 침입지역은 226곳의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침입은 영남·호남과 함께 충청지방이 특히 심했다. 그리하여 충남의 경우만 침입횟수 78건, 침입지역 38곳에 이르고 있다. 충남의 경우 왜구 피해가 있던 지역은 서천, 한산, 안흥, 태안, 서산, 면천, 보령, 아산, 온양, 천안, 목천, 청양, 공주, 연산 금산 등 전도에 걸쳐고 있는데, 해안을 끼고 있는 보령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 왜구의 규모는 적을 때는 20척에서 많을 때는 500척에 이르는 대선단을 구성하여 한반도의 연해안과 내륙 각지를 위협하였으며, 이들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서 선박과 말을 이용하여 고려의 정규군을 연파하면서 고려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말의 왜구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니라 뛰어난 전투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적 전투 집단이었다.

고려 말 보령지역에 대한 왜구 침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려사』 세가 우왕 7년 11월 왜(倭)가 보령현(保寧縣)에 침입하였다

『고려사』 지리지 남포현조에 우왕 6년(1380)에 왜구로 인하여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비로소 진성(鎭城)을 두고 유망민을 불러 모았다.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홍무(洪武) 13년(1380) 왜구(倭寇)로 인하여 인물(人物)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 2년(1390) 비로소 진성(鎭城)을 설치하고, 유리(流離)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안집(安集)시켰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6년(1397)에 비로소 진병마사(鎭兵馬使)를 두고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보령지역의 왜구 침입 기록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령현의 경우에는 그 이웃한 홍주나 결성지역 침입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함께 많은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남포현 지역은 대단히 특이한 기록을 보인다. 고려사 지리지 남포현조에는 1380년 왜구가 침입하여 1390년까지 10년 동안 유린 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지리지의 다른 군현에는 왜구침입 피해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이 남포현지역만 왜구 피해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진성을 설치함으로써 백성을 불러 모아 수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그 영향으로 진병마사를 두고 판현사를 겸하게 하여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음을 보여 준다.

이것으로 보아 이때 남포현의 치소는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었으므로, 10여 년 동안 왜구들이 남포현인 웅천천 하구의 포구에 배를 정박하고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내륙지역을 약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남포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기 위하여 중앙에서 군대까지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열전 정몽주조와 변안열조에는 “왕안덕이 남포의 전투에서 모든 군사가 패배하여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으며, 돌아올 때는 여주(驪州)에 귀양 간 우왕을 만나고 왔음이 확인되어 그 죄를 물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우왕이 남포에 왜구가 침입한 기간인 1388년에 여주에 귀양 갔다가 1389년에 사망하므로 시기적으로 왕안덕이 남포의 왜적과 싸운 시기는 고려사 지리지의 왜구 남포 침입 기사 시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고려사 왕안덕 열전에는 “찬성사(贊成事)를 제배(除拜)하였을 때 왜적이 옛 비인(庇仁)의 경계에 주둔하였으므로 왕안덕(王安德)이 광주 절제사 최운해, 양광도 도절제사 이승원과 함께 90리를 추격하여 도둔곶(都屯串)에서 싸워 대패하여 왕안덕은 말에서 떨어져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나 사졸의 죽은 자가 4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것이 앞에서 말한 남포전투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도둔곶은 현재 비인 지역이지만, 웅천천 하구의 반대편 연안이기 때문에 남포현의 웅천천 하구에서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왕안덕은 고려말기 무신으로 많은 전투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밀직부사(密直副使)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남포에 왜구가 침입한 같은 시기, 즉 1380년 8월, 금강 하구에도 倭船 500여 척이 정박하여 이곳을 교두보로 삼고 약탈을 자행하자, 최무선이 화약으로 물리친 진포대첩이 있었고, 그 무리들을 추격하여 이성계가 남원에서 물리친 황산대첩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고려 말 금강 하구와 남포현의 웅천천 하구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왜구의 교두보였고 피해가 컸던 곳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남포현에는 진성(鎭城)이 설치되고, 수군기지인 마량진이 웅천천 하구에 설치되고, 서천포영이 금강하구에 설치되어 충청수영의 속진으로 기능하게 된다.

5. 불교문화의 발달과 보령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훈요10조 등을 통하여 불교를 숭상할 것과, 연등회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당부하여 불교 국가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불교는 건국초기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크게 발달하였다.

왕건이 불교국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후삼국 통일기에 9산선문의 선종승려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9산선문 중의 하나인 보령의 성주산문 출신의 승려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943년(태조 26, 혜종 즉위년)에 세워진 무염의 법손인 현휘대사의 탑비인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에 9산선문 중 성주산문은 천하에 비길 데가 없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나말 여초에 9산선문 중에서 가장 번창한 것으로 보인다.

무염의 문하에는 당시 사선(四禪)이라 불리던 순예(詢父), 원장(圓藏), 영원(靈源), 현영(玄影)이 있었고, 승량(僧亮), 보신(普愼), 심광(深光) 등의 2,000여 제자가 있었으며, 특히 충주 월광사(月光寺)의 대통(大通 816~883), 양평 보리사(菩提寺) 여엄(麗嚴 862~930), 충주 정토사(淨土寺)의 현휘(玄暉 879~941), 해주 수미산파를 개창한 이엄(利嚴, 866~932) 등은 큰 활약을 하였다. 이들 중 여엄·현휘·이엄 등은 왕건이 국사나 왕사의 예를 취하여 대우하였던 승려들이었다.

이렇게 고려시대에도 계속 성주사와 성주산문이 번창하며 보령지방과 더 나아가서는 호서지역 불교 발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나 성주사의 고려시대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무신정변 이후 송광사의 보조국사 지눌이 선종 부흥 운동을 일으켜 9산선문의 선종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창시할 때 성주산문도 조계종에 포함되게 되었고, 그 법맥은 오늘날의 조계종으로 이어온다.

조계종은 9산선문 중 전남 장흥 보림사에 중심을 둔 가지산문(迦智山門) 출신인 지눌(知訥)이 창시한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이르면 가지산문에서 뛰어난 승려가 많이

나와서 선종 불교를 주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을 창시한 지눌을 위시하여 삼국 유사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보각국사 일연, 공민왕대 9산선문 재통합에 힘쓴 원정국사 보우 등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어간 승려들이 가지산문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이규보도 그의 『동국이상국집』에서 가지산문이 9산 가운데 가장 큰 산문으로 승려들이 구름처럼 모인다고 하였다.

고려시대는 태조 이래 국가나 왕실의 융성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국가가 주재하는 각종의 불교행사가 수없이 베풀어졌으며, 각 개인에 있어서도 복을 빌기 위한 갖가지 불교행사가 잦았다. 국왕의 생신에 만수무강을 비는 축도도량(祝禱道場), 왕실에서 부왕과 모후의 명복을 비는 기진도량(忌辰道場), 4월 8일의 불탄일(佛誕日) 행사, 모든 대중에게 평등하게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나눠주는 무차대회(無遮大會)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불교 행사 중의 하나가 담선법회(談禪法會)다.

담선법회는 선에 대한 이치를 서로 공부하는 한편, 참선도 아울러 실천함으로써 선풍을 크게 떨치려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담선법회는 처음에는 보통 3년마다 열리면서 국가가 주재하면서 보제사(普濟寺), 서보통사(西普通寺), 광명사(光明寺), 창복사(昌福寺), 대안사(大安寺) 등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에서 주관했던 담선법회 외에도 수미산·성주산·가지산 등 9산선문에서도 각기 담선법회가 열렸는데, 대개 매년 겨울철에 열렸다. 9산의 경우에는 담선법회를 일명 총림(叢林)이라 불렀다. 담선법회는 법회의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론(禪論)을 서로 나누어 선의 이치를 익히고 토론하며, 아울러 참선을 하는 모임이지만, 이 담선법회를 열 때 이규보(李奎報)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법문이 많다 하더라도 모두 다 조계대사 혜능(曹溪大師 慧能)의 불법을 유지한다.
- 이 돈문(頓門)의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불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 부처는 곧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이 최상의 뜻이다.

이 말은 다같이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그 골자로 하는 보조국사 지눌의 선사상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보조선(普照禪)은 9산선문 담선법회를 통해서도 널리 퍼져가게 되었다.

이러한 담선법회가 원 간섭기인 충렬왕 때는 원을 저주하기 위한 불순한 집회라는 트집으로 원에 의해 금지 당하기도 하였다. 대몽항쟁기인 원종과 고종 때 몽고병 격퇴를 위한 기도가 수반되어 더욱 성황을 이루게 된 데서 기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에 오해가 없기를 설득한 후 이 담선법회는 고려말기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담선법회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성주산문의 본산인 성주산 성주사에서 열렸던 것이다. 이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의 성주산문 문도들이 보령의 성주사로 구름처럼 찾아왔으니, 당시 성주사의 위세를 보여주고 남음이 있었다 할 것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성주산(聖住山)에서 담선회를 열 때에 참석한 학인들이 조사를 뵈는 데 대한 문」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 성주산문 담선법회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삼사납(三事納)을 펼쳐입고 구름 들고 물 흐르는 곳에 와서, 일관향(一瓣香)을 가지고 단청으로 꾸며진 영정(影幀) 아래에 절하오니, 맑게 살피시어 산문(山門)을 힘껏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삼사납 : 납(納)은 종이 입는 가사를 말하며, 삼사는 5조(條)가사·7조가사·9조가사를 말한다.

즉 여러 층의 중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이다

*일관향 : 선승(禪僧)이 남을 축복할 때 쓰는 향인데 전의하여 성경(誠敬)·열복(悅服)의 마음을 비유하여 쓰기도 한다.

담선법회를 하기 위해 성주사에 온 산문의 승려들은 산문의 조사(祖師)인 무염의 영정을 뵈고, 이어 탑비와 부도 등을 뵈면서 조사를 받들면서 성대한 담선법회를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성주사와 함께 주목되는 보령지역 고려시대 불교 유적이 웅천읍 수부리 단원사이다. 단원사는 고려시대에 어떻게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나오는 구룡사(九龍寺)로 추측되기도 한다. 현재 남아 있는 귀부와 이수(龍首)는 비신이 없어 주인공과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 조각 솜씨나 크기가 아주 빼어난 고려시대 어느 고승 탑비이고, 또한 함께 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부도 파재는 옥개석과 기단부가 일부 남아 있는데, 이 또한 드물게 보는 뛰어난 작품이다. 따라서 성주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성주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곳도 어느 뛰어난 고승이 주석하면서 이 지역 불교문화 발달에 기여한 곳으로 평가된다.

6. 백이정과 보령

남포지역은 고려시대 명종조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를 지낸 백임지(白任至), 과거에 합격하고 고종, 충렬왕 때 벼슬길에 나가 외교문서 작성에 크게 활약했던 백문절(白文節),

충렬왕 때 원에 가서 10년 동안 성리학(性理學)을 최초로 연구하고 돌아와 성리학을 보급시켰던 백이정(白頤正) 등의 남포백씨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불교 숭상 국가였던 고려에서 그 후기에 들어오면 성리학이 전래되어 사상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종래의 자구(字句) 해석에 힘쓰던 한나라의 훈고학이나 사장(詞章)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었다.

고려에 처음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은 안향(安珦)이었다. 그후 백이정이 직접 원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 와서 이제현과 박충좌 등에게 전수하였다. 충선왕 때 이제현은 원의 수도에 설립된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귀국한 후 이색 등에게 영향을 주었고, 공민왕 때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다.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려 말의 개혁세력으로 등장한 신진 사대부였다. 이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며, 이들은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학, 주자가례 등을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후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는 쇠퇴하게 되었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사회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성리학은 국가 통치이념이 되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다.

이러한 성리학 도입초기에 직접 원에 가서 배워 와서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성리학 전래에 큰 역할을 한 학자 백이정이 고려시대 남포현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에 대하여 『고려사』 열전과 『동국여지승람』 남포현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백이정은 남포군 사람 백문절의 아들이며 천자(天資)가 순후(純厚)하여 공보(公輔)의 기량(器量)이 있어 충선왕을 섬기매 뜻이 보도(輔導)에 있었으나 충선왕이 그 말을 쓰지 않았다. 여러 번 관직에 나가 첨의 평리(僉議評理) 상의회(商議會)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가 되었고, 후에 상당군(上黨君)을 봉(封)하였다. 때에 정주(程朱)의 학문이 처음 중국에 행하여졌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미치지 않았는데, 백이정이 원에 있어 이것을 배워 우리나라로 돌아오니 이제현(李齊賢), 박충좌(朴忠佐)가 제일 먼저 사수(師受)하였다.

성리학 전래에 큰 역할을 한 백이정의 후손들이 보령의 남포현 지역에 토착세력으로 세거해 오고 있으며, 조선후기 족보 간행이 유행하고, 문중 우월성 과시를 위한 여러

작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남포현 지역에 18세기 건립되었던 신안사(新安祠)에 후손과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주희, 송시열, 한원진, 권상하, 이제현 등과 함께 백이정이 배향되어 이 고장 유교문풍을 진작시키는 데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

고려 말에 초기 성리학 수용자가 대부분 왕경(王京)에서 출생 성장하였지만, 백이정은 증조 대에 기가(起家)하여 남포에 재지적 연고를 두었던 인물로, 고려말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이며 역사적으로 한국유학사의 한 장을 장식한 유현(儒賢)으로 평가되고 있다.